



수출신용기관

◆ 미수은, 2005년 경쟁력 보고서 발표

미수은은 중장기수출신용 분야에서 2005년도 미수은의 경쟁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경쟁력 보고서는 수출자, 금융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주요 고객기업과의 토의, OECD 자료, G-7국가 ECA와 일부 OECD 비회원국 ECA의 발표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G-7국가 ECA에는 미수은 외에 캐나다 EDC, 프랑스 Coface, 독일 Hermes와 KfW, 이탈리아 SACE와 SIMEST, 일본 NEXI와 JBIC, 영국 ECGD가 포함되어 있다.

2005년 주요 ECA 동향

첫째, 신흥개도국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화하면서 신흥개도국 시장에서 민간자본에 의한 금융조달 및 현지금융 증가로 ECA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다. G-7국가 ECA의 중장기수출신용이 2000년 490억 달러에서 2005년 597억 달러로 증가한 반면, 신흥개도국에 대한 민간자본 공여규모는 2000년 200억 달러에서 2005년 400억 달러로 2배나 증가하였다.

둘째, 신흥개도국의 자본재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신흥개도국으로부터의 공적수출신용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신흥개도국인 중국, 인도, 브라질의 자본재 수출은

2000년 이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국은 자본재 수출이 2000년 826억 달러에서 2004년 2,683억 달러(2005년도는 3,500억 달러로 추정)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셋째, 경쟁국간에 컨소시엄으로 수출하는 multi-sourcing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자국산 기자재(national content) 지원을 통한 직접적인 고용창출 보다는 자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national interest)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지원하는 경향(made in vs. made by)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이슈들

이번 보고서는 새로운 이슈로서 ECA의 상업화 경향과 중국의 수출신용제도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첫째, ECA의 상업화 경향과 관련해서는 ① 포트폴리오 관리기법 도입을 통한 고위험 거래 지원, ② 수익성 강화를 위한 OECD 등 고소득국가에 대한 수출거래 지원 확대, ③ 외산기자재 지원 확대 등 세 가지를 다루고 있다.

포트폴리오 관리란 정교한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기법을 개발하고, 저위험자산의 축적을 통해 확충된 인수여력을 활용하여 고위

〈표 1〉

G7국가의 중장기 공적수출신용 공여 규모

단위: 억 달러

G-7국가	2001	2002	2003	2004	2005
캐나다	87	84	81	86	99
프랑스	61	53	51	79	98
독일	57	59	57	95	113
이태리	19	18	36	55	68
일본	92	57	115	108	95
영국	31	47	37	53	37
미국	68	77	86	88	87
합계	415	395	463	564	597

자료: OECD Statistics on Export Credit Activity.

협거래 지원을 강화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관리기법 도입의 논리적 필요성으로는 WTO 규정에서 요구하는 ECA의 균형수지(break even) 운영, 시장 가격 이상의 금리 및 수수료 산정, 한정된 재정지원으로 인한 제약 등을 들 수 있겠다.

최근 ECA들은 수익성을 강화하고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리스크가 낮은 시장을 모색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 결과 개도국에서 고소득국가로 시장을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많은 ECA들이 고소득국가 지원확대 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OECD 국가에 대한 ECA 수출신용 지원비중은 1990년대 말 20%에서 2004년 33% 수준으로 커졌다.

기업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ECA들은 자국기업의 현지자회사를 통한 외산기자재 구매를 현지비용(local content) 또는 제3국산 기자재(foreign content)로 간주

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둘째, 작년 경쟁력보고서에서는 중국, 인도, 브라질의 신흥개도국 ECA를 검토 대상에 포함시킨바 있으며, 금년에는 그중 공적수출신용 활동이 제일 활발한 중국의 수출신용제도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수출신용제도는 중국 수출입은행, 중국수출보험공사(Sinosure), CDB(China Development Bank)의 체도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으며, 지금 추세대로라면 2010년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공적수출신용 공여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요 항목별 평가내용

(1) 핵심 영업정책 및 제도의 경쟁력

미수은의 부보정책(cover policy)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국 ECA들이 적극적으로 국별위험(country risk)과 차주위험(borrower risk)을 인수함에 따라 격

〈표 2〉

중국의 총 공적수출신용 공여 규모

단위: 억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8	9	54	101	129	184

주: 단기수출신용 포함.

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이자율은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최저 이자율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ECA들간에 경쟁력 차이가 거의 없으나, 차주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부과할 수 있는 보험이나 보증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

대외위험수수는 미수은이 경쟁력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미수은은 대외위험수수를 대부분 OECD에서 정한 최저위험수수료(MPR) 수준에서 결정하는 반면, 일부 경쟁국 ECA들은 최저위험수수료에 높은 할증률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주요 수출신용 프로그램 경쟁력

미수은의 항공기금융, 프로젝트파이낸스(P/F) 금융은 경쟁국 ECA보다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협조금융, 외화표시 보증(보험)은 경쟁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수은의 항공기금융은 대외위험수수료, 외화표시 보증, 협조금융, 적극적인 위험인수 등 모든 측면에서 유럽의 경쟁국 ECA에 비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ECA가 지원하는 P/F 거래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P/F 협상에서 정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한 ECA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미수은의 P/F 금융도 경쟁국 ECA 보다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수은의 협조금융은 개별거래 지원이 많아서 'One-Stop Shop Agreement'를 활발히 체결한 유럽의 경쟁국 ECA에 비하여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1980년부터 시행된 미수은의 외화표시보증(보험) 제도는 경쟁국 ECA보다 경쟁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출기업, 금융기관 등은 미수은이 대지급 이후 차주에게 미 달러화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말고 환율변동 위험을 직접 부담할 것과, 피보증 금융거래가 고정금리인 경우 전액을 일시에 대지급(acceleration)하지 말고 기존 상황계획에 따라 대지급(installment-by-installment)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경제철학과 경쟁력

미국 정부는 공적수출신용에 대한 철학으로서 ① 경쟁국 ECA와의 동등경쟁, ② 상업금융과의 경쟁금지, ③ 재정지원(국민세금)에 대한 최소부담을 들고 있으며, 일부 경쟁국 ECA들이 언타이드 원조, 타이드 원조, 마켓윈도우의 시행을 통해 동등경쟁원칙을 훼손하고, 나아가 미수은과 미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 수출기업들은 경쟁국 ECA가 타이드 원조로 상업성 거래를 지원할 때 이에 대응하는 미수은의 매칭절차의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현재 마켓윈도우를 공여하는 G-7 ECA는 EDC와 KfW-IPEX이며, 미수은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지원으로 미국 수출기업이 불공정 경쟁을 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4) 공공정책 수행

미수은은 금융지원 시 경쟁국 ECA와 달리 국내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economic impact) 검토, 외산기자재(Foreign Content) 지원 제한, 자국 선박에 의한 수출 목적물 운송(shipping requirement)

〈표 3〉

미수은의 경쟁력 종합평가 점수

평가 부문	점 수
핵심 영업정책 및 제도	A
1. 인수정책 및 위험인수의 적극성	A
2. 금리	A
3. 대외위험수수료	A+
주요 지원 프로그램	A-
1. 대형항공기	A
2. 프로젝트 파이낸스	A
3. 협조금융	B
4. 외화표시보증	A-
종합 평 점	A

등 공공정책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미수은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하였다.

종합평가

2005년 미수은의 경쟁력에 대한 종합평가는 2004년과 마찬가지로 A등급으로서, 여타 G-7 ECA와 비슷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수은은 인수정책, 금리, 대외위험수수료 등 핵심 영업정책 및 제도 부문에서 경쟁국 ECA에 대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프로그램 중 항

공기금융, P/F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협조금융, 외화표시보증에서는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경쟁국 ECA의 타이드 원조, 마켓윈도우는 미국 수출기업이 부딪히는 사례가 많지 않으나 미수은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금융지원 시 국내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 고려, 외산기자재 지원 제한, 자국 선박에 의한 수출 목적물 운송 정책은 미수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김 재 철】

◆ 중국수은, 2005년도 실적 발표

중국수출입은행(The Export-Import Bank of China)이 2005년도 업무실적을 발표하였다. 10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마지막 연도이기도 했던 2005년에도 업무실적은 역시 급격히 성장하였다. 특히 중국정부가 집중 지원을 천명한 조선, 첨단기술제품, 플랜트, 해외투자 등으로 중심 지원분야가 급

격히 고도화되었고, 전체 지원액 중 국제경제협력사업 지원비중이 41.6%로 급증하는 등의 특징을 보였다.

수출자신용과 구매자신용을 포함한 수출금융 집행 실적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114억 7,000만 달러¹⁾를 기록하였다. 이중 수출자신용 집행액은 32.6% 증가한 824억